

양림을 '걷다' 예술을 '보다' 공간을 '잇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특별전 'Connecting Way'...11월17일까지

양림동은 오랜 시간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많은 작품이 탄생한 장소로 현재 40개 이상의 작업실과 미술관,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양림동에서는 8개의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관과 5개의 파빌리온 전시, 그리고 양림골목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들은 마치 점처럼 분산되어 그 사이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 대표 문화예술공간인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오는 11월17일까지 양림동 전역을 잇는 특별전 'Connecting Way'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양림동 곳곳을 탐험하듯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양림동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반영해 마을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다. 전시는 상설전, 야외전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마을 고유의 건축물과 골목길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 작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전시다. 3개의 전시장에서 전시 주제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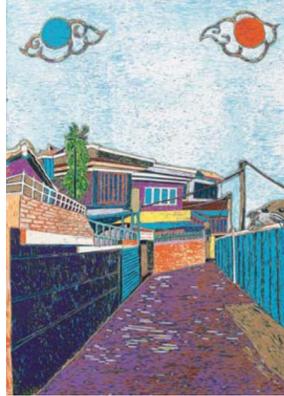
한 장르의 야외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옛 선교사 사택 차고지를 개조한 양림동 차고갤러리에서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출신 작가들의 릴레이 개인전이 펼쳐진다. 선교역사를 가득 품은 이곳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희원·양나희·나래수 쿠마르, 위모 암발라 비앙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도 상설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과거 은성교회로 사용되다가 1975년 문태소리 은성유지원으로 개원 이후 약 50여 년간 운영되며 수많은 꿈나무들을 길러낸 배움터였다. 양림동 여러 세대의 추억과 역사가 서려 있는 공간이다. 현시대 가장 큰 화두인 환경문제를 동양적 개념에 비추 해석하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곽재구·서여름·조은솔·황인호 작가가 참여한 110년 전 지어진 한옥과 1970년대 지어진 양옥건물, 마당으로 구성된 1912 한옥에서는 자연과 연결 지점을 갖는 작품을 소개한다. '빛, 시간의 중첩'을 주제로 곽재구·이뿌리, 신선화, 윤남웅, 조현택, 천영록, 최고은, 최석현·정현기, 한선주 작가가 함께 한다. 또 각 상설전시장 사이사이를 연결해줄 다양한 야외 설치 작품도 있다. 양림동 시인 곽재구의 시구를 캘리그



조현택작 '질실파려안'



한선주작 '잠시의 휴식'



서여름작 '숨바꼭질'

라피 작가 이뿌리가 한글 서체로 표현한 협업 작품, 박정용 작가의 조각, 신용구 작가의 천 설치 작품, 최원규 작가의 황토와 판소리를 결합한 설치, 뽀뽀의 황토와 판소리를 결합한 설치, 뽀뽀의 바이프로젝트 그룹의 골목 사운드, 박지형 작가의 퍼포먼스 등이 마을 곳곳을 채운다. 현재 양림동에서 작업 중인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 전시도 진행된다. 강근선·박성호, 신선화, 신수정, 이이남, 이조흠, 최석현, 최순임, 한부철 작가 작업실을 방문해 그들의 창작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부대행사로 아티스트 토크와 아트투어비스가 운영된다. 정현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대표는 "이번 특별전은 마을 전체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어, 예술과 일상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국악 꿈나무 송원초 이초아양 '영아티스트 콘서트' 판소리 공연

광주송원초 5학년 이초아 양이 최근 제4회 영아티스트 콘서트 '샘이 맑은 소리' 무대에서 판소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영아티스트 콘서트는 선릉아트홀이 주최, 지금풍류가 공동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화남보은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청소년 예술가들의 전통예술 개인 발표회다. 2002년부터 '샘이 맑은 소리' 콘서트를 통해 국악 꿈나무들이 능동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소리 분야 공연자로 선정된 이양은 이날 공연에서 '이초아 동편제 소리', '강도근제 이난초바디 흥보가 중 흥보가 매 맞는 대목인 제비노정기'를 들려줬다. 이초아 양은 "장단이 빠르고 경쾌한 제비노정기를 부를 때면 마치 제비를 따라 중국의 여러 명승지를 여행하는



즐거움 기분이 들고, 동편제 소리는 담으로 흠뻑 젖을 만큼 힘이 들지만 시원함을 느끼는 매력적인 곡"이라며 "앞으로도 공부에 더욱 매진해서 판소리의 매력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CC 그림자인형극 '이야기 썩! 이야기야!' 공연 모습

어둠 속 빛 따라 펼쳐지는 전래동화

28-29일 ACC 그림자인형극 '이야기 썩! 이야기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8일과 29일 ACC 어린이 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그림자 인형극 '이야기 썩! 이야기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호랑이 형님'과 '질신 장수와 우산장수' 등 여러 편의 전래동화를 엮어 현대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각색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과격 시도의 그림자 인형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질신장수, 우산장수, 포수 등 세 명의 인물이 들려주는 공연 '이야기 썩! 이야기야!'는 옛 이야기에 숨은 삶의 모습과 지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세 배우의 움직임은 빛의 마술을 만

나며 관객을 색다른 시공간으로 이끈다. 빛과 그림자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그림자에 숨을 불어넣고 배우의 신체는 하나의 소품이 돼 그림자로 되살아난다. 또한, 무대 뒤에서 행해지던 기존 그림자극의 경계를 허물고 배우와 함께 관객 앞으로 드러내 그림자들이 무대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이야기 썩! 이야기야!'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9일 오후 2시 등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천원이다.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ACC재단 누리집에서 예매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탐현이 들려주는 로맨틱한 가을 이야기

오늘 광주예당기획공연 포커스

특유의 음색과 애뜻한 감정표현이 돋보이는 아티스트 탐현(Tophyun·사진)의 단독 콘서트가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7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서 GAC 기획공연 포커스 일환으로 탐현 단독 콘서트 '포스트잇'을 연다. 탐현은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유튜브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2020년 9월 자신의 첫 데뷔 디지털 싱글 '낮선 이별'을 발표하면서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2022년 1월, 리메이크 앨범인 '호랑수월가'를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나에게 그대만이', '사랑한다고 말해줘' 등을 발표하며 끊임없이 음악적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장르를 넘나드는 탐현은 다양한 색

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형 메모지 '포스트잇'처럼 대중들의 선호도에 맞춰 다채로운 매력을 공연에 담아 음악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에게 그대만이', '호랑수월가', '내 세상은 너로 가득해'와 더불어 최근 발매한 'T의 연애' 등으로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적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